

# Dow Corning, 중국에 실리콘 투자

## 아시아 유력 후보지로 중국 선정 ... 선두주자 기반 다지기 계획 착실

세계 최대의 실리콘 공급기업인 미국 Dow Corning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Dow Corning의 중국 담당 이안 테크레이 사장은 11월7일 홍콩에서 가진 CEO 컨퍼런스에서 “Dow Corning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수억달러를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여러 곳을 유력한 공장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안 테크레이 사장은 앞서 전날 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Dow Corning이 실리콘 분야 제품과 서비스에서 선두 주자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중국에 확실한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ow Chemical과 Corning의 합작기업인 Dow Corning은 이미 중국 상하이의 송지양 공단에 공장과 실험실 운영을 위해 300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앞으로 기술 서비스와 개발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실험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Dow Corning은 10년 전 중국시장에 진입해 현지에서 실리콘을 소재로 한 각종 제품과 전자용품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생산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10>